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원/엔 환율 800원대 위협
- 소득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최악

경영 노트

- 파랑새 증후군(Bluebird Syndrome)과 기업의 대응

사회 트렌드

- 영파라치 제도
- 의통역자(mediationist)

저널 브리프

- 제2의 중국, 우즈베키스탄

洗心錄

- 미래의 가족 : 네트워크 가족

□ 원/엔 환율 800원대 위협

- 2월 7일 원/엔(100엔) 환율이 811.95원을 기록하여 800원대 붕괴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
 - 2004년 말까지 1,000원대를 유지하던 원/엔(100엔) 환율이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6년 2월에 들어서서는 810원대로 주저앉으며 1년여 만에 20% 가량의 급락세를 나타냄
 - 이는 엔화가 미국의 정책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금리차 확대에 달러화에 약세를 나타낸 반면, 원화는 국내 수출 호조세 지속, 외국인 주식 투자자금 유입 등 국내 요인에 의해 달러화에 강세를 나타내기 때문임

- 국내 경제가 환율에 대한 내성이 강화되고 있으나 원/엔 환율 하락이 장기화될 경우 자동차, IT 제품 등 일본과 경합 관계에 있는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 소득 양극화, 외환위기 이후 사상 최악

- 2005년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 5분위 배율(소득 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인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5.43으로, 1999년 5.49 이후 사상 최악의 소득 격차를 나타냄
 - 도시근로자 가구의 2005년 月평균 소득은 325만원으로 2004년의 311만3,000원보다 4.4% 증가하는 데 그침
 - 특히 근로소득 부문이 2.7% 증가하는 데 머물러 외환위기 기간인 1998년 -6.4%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月평균 소비지출도 21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4.0% 증가하는 데 그쳐 1998년 -10.7% 이후 가장 심각한 소득-소비의 동반 침체 현상을 나타냄

- 현 정부 들어 복지와 분배 정책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나 소득 격차가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분배(先성장 後분배)’ 정책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실정임

□ 파랑새 증후군(Bluebird Syndrome)과 기업의 대응

- 취업난 속에서 가까스로 얻은 자리에 만족하지 못한 신입사원들이 이상적인 직장을 찾아 떠돌아다닌다 해서 이를 ‘파랑새 증후군’이라 부름
 - ‘파랑새 증후군’은 벨기에 작가 모리스 마테를링크가 쓴 희곡 “파랑새”의 주인공처럼, 장래의 행복만을 몽상하면서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빗대어 만든 용어임
 - 인쿠르트 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기업 4곳 중 1곳에서는 입사 1년이 지난 신입사원이 절반도 남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신입사원의 채용과 교육 등에 들인 시간과 비용 손실은 물론, 기존 조직에 미칠 파장을 고려할 때 기업의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

- 이는 근본적으로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신세대의 가치관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업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역설이기도 함
 - 상당수 신입사원들이 직장의 분위기나 직무에 대한 불만족 등을 주요 이직 사유로 밝히고 있으나, 우선 취업부터 하고 보자는 무책임한 태도, 과도한 기대로 인한 참을성 부족 등 인스턴트에만 익숙한 요즘 신세대들의 행태가 그대로 반영
 - 한편, 기업에 있어 이러한 현상은 신세대들이 보다 쉽게 조직에 융화될 수 있는 유연한 기업문화를 갖추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음

- 신입사원의 직무 만족과 조직 충성도를 제고하는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
 - 독특한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 및 직무 적응 프로그램 등 신입사원이 회사의 경영철학 및 조직에 쉽게 융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스타벅스는 “스타벅스 체험”이라는 신입사원 환영 프로그램에 경영진과 함께 다양한 커피 제품을 시음하며 회사 생활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져 많은 호응을 이끌어냄
 - 신입사원들이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도록 직장 선배와 상담 파트너를 맺어주는 멘토링(mentoring; 후견인)제도의 도입이 고려해 볼만함
 - 기업들은 구성원간의 신뢰(trust), 업무에 대한 자부심(pride), 재미(fun)를 느낄 수 있는 일하기 좋은 직장을 꾸며 구성원의 조직 충성도를 높여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영파라치 제도

- 2월 1일부터 시행된 ‘영파라치 제도’ 신고 건수가 시행 첫날인 2월 6일까지 1만 6,000건을 넘어 놀라움을 주고 있음
 - 영파라치(영화+ 파파라치) 제도는 ‘불법 복제 영화 신고 제도’로서, 영화 포털사이트 시네티즌과 법무법인 일송이 영화 수입·제작사에서 저작권 고소 대행 업무를 위임받아 불법파일을 유포하는 네티즌을 신고하면 보상(영화상품권, 문화상품권 등)을 해주는 것임
 - 시네티즌이 신고를 접수하고 일송 측이 팀을 꾸려 사안별로 심사한 뒤 합의와 고소에 나설 예정이라 함

- 이 제도 실시 후 주최 측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것임
 - 오래된 외국 영화는 당연히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네티즌이 많다는 것임
 - 또한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다운로드 사이트를 개설한 것은 엄연히 불법이지만, 이 사이트에서 돈을 지불하고 영화 파일을 유포해도 불법에 해당한다고 함

□ 의통역자(mediationists)

- ‘의통역자’란 의학(medicine)과 통역(translation)을 합성한 조어에서 유래된 말로, 의료 과정에서 환자와 의사 간의 통역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함
 - 미국의 경우, 인구 구성이 다양해지고 외국에서 진료 서비스를 받으러 오는 환자가 늘어남. 이에 따라 외국어를 말하는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 영어로 교육받은 의사들은 언어 문제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함
 - 가령, 캄보디아어로 ‘열’(fever)은 수많은 증상을 가리키는데 자칫 통역을 잘못된 경우 오진 가능성이 있음

- 향후에는 ‘의통역’ 혹은 ‘의학 통역’(medical translation)이라는 새로운 학과가 등장하여 이 껍을 매울 것으로 전망됨
 - 여러 언어에 능통하며 의학에 관한 기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의통역자들이 새로 등장하여, 의료 및 치료 과정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임

□ 제2의 중국, 우즈베키스탄*

■ 중국 이후의 차기 진출 유망 시장으로 우즈베키스탄이 급부상하고 있음

- (강점) 노동력, 천연 자원, 내수 시장 면에서 강점이 큼
 - **저렴하고 숙련된 노동력**: 교육 수준이 높고(문맹률 거의 제로), 노동의 질도 우수하며, 인건비는 아직 중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함
 - **천연 자원의 보고**: 각종 천연 자원의 다량 보유,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저렴한 에너지 비용이 강점임
 - **중앙아시아 최대 내수 시장**: 공장부지 및 공업용수 확보가 용이하며, 인구도 2,600만 명으로 중앙아시아 최대의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음
 - **진출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2005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 기업 인센티브 시행법이 발효되어 투자 규모와 지역별로 3~7년까지 면세 혜택을 주고 있는 등 기업 환경을 꾸준히 개선해 나가고 있음
 - **수출 용이**: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지역 수출품은 대부분 무관세이며, 인근 중앙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 또한 용이함
- (약점) 그러나 낙후된 금융시장, 저조한 구매력, 부정부패, 높은 물류 비용 등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낙후된 금융시장**: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외환 사정이 나빠 외환 통제가 까다로우며, 수출업체의 경우도 수출로 얻은 외환 수입 가운데 일부를 현지화로 강제 매각해야 하는 등 금융시장이 낙후되어 있음
 - **저조한 구매력과 불법 통관 성행**: 연평균 개인소득이 400달러에 불과 구매력이 저조하며, 통관제도 미정비로 불법 및 편법 통관이 성행함
 - **만연한 공무원 부정부패**: 공공 행정 수준이 낙후되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가 심하여 기업 활동에 대한 간섭이 심함
 - **수출시 높은 물류비용**: 대양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다른 2개국을 반드시 경유해야하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높음
- (전망) 우즈베키스탄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뛰어나지만 제도 및 인프라 수준이 낙후되어 있어 단독으로 장기 투자에 나서기 전에 현지 네트워크 구축 등 사전 투자 정지 작업이 필요함

* 이 글은 『Economic Review』(2005.02.14)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미래의 가족 : 네트워크 가족

이혼과 재혼, 동거 등의 급증으로 결혼제도가 불안해지고,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의 가족제도도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래의 가족은 어떨까? 독일의 미래학자 마티아스 호르크스(Mattias Horx)는 <미래를 읽는 8가지 조건>이란 책에서 “네트워크 가족”을 상상한다.

미국에서 50퍼센트가 넘는 사람들이 두 번째 또는 세 번째로 형성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한다. 전형적인 미국의 축제 한 장면을 그려보자. 전부인 그리고 전남편이 자녀와 손자들, 게다가 재혼으로 얻은 아이들까지 대동하고 한자리에 모이면, 그 사이에 늘어난 가족이 백 명은 족히 된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유전적인 차원과 각자의 사회 경제적 수준을 뛰어넘어 접촉한다. 이러한 축제는 가족이라는 제도가 믿기 어려울 만큼 뛰어난 적응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한다. 또한 가족 구성원의 크기가 커지면서, 개인의 경쟁력은 개인의 역량에 더해 가족 네트워크의 역량이 합쳐지는 시기가 오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이혼과 재혼이 반복되고 가족적 유대감이 약화되면서, 전통적인 가족이 지녔던 유전적인 결합은 갑자기 탄력적인 것으로 변모할 것이다. 가족의 영역에 친구 관계까지 포함되고 확장되었다. 예를 들면, 거주공동체(여러 사람이 공동체를 구성하여 그중 한사람의 명의로 주택을 임대하고, 그 집에 같이 살면서 임대비용을 포함한 각종 비용을 분담하고 공동의 규칙을 준수하는 주거문화)라는 개념도 보편화되고 있다. 가족의 유전적인 결합이 지녔던 부담이 더욱 감소하게 된다.

이것은 네트워크가 하나의 가족 개념으로 등장한 것이다. 동시적이고 지속적으로 접촉할 때 발생하는 ‘부담스런 친밀감’을 피하기 위해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도 동원된다. 가령 이메일 가족(이메일로만 접촉하는 가족), 이웃 가족(가까이 있으나 다른 집에 떨어져 사는 가족) 등이 등장하는 것이다.

향후 가족이란 무엇일까? <슈피겔>지는 앞으로 이를 결정짓는 것은 누가 누구와 함께 아침 식탁을 앉느냐에 달려 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호적 등본이 한 가족이라는 것을 더 이상 말해 주지 않는 시대가 온다.

“중요한 것은 펙(puck)이 어디에 있느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이다.”

- 웨인 그레츠키(1961~) : 미국의 아이스하키 선수